

‘지리산신 제향’ 제단 터 발굴...구례 남악사 복원 기대감

길이 7.2m·높이 87.42cm...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 사기·기와 등 유물 다수 수습

지리산 남악사의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에서 지리산신을 제향했던 제단의 실체가 밝혀지는 등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구례군과 발굴조사에 있는 재단법인 나라문화연구원(원장 박태홍)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산 71의9 번지 당동마을 인근 옛 남악사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단과 제기 등을 보관한 예감과 담장지, 축대를 발굴하고 분청사기와 명문기와 등 다수의 유물들을 수습했다.

봄 가을로 제향을 올렸던 제단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길이 7.18m이고 높이는 87.4cm로 제단의 축대는 고려와 조선시대 것이 같이 발굴됐으며 장방형으로 단면은 약 18m이다.

또 담장지는 80cm 폭으로 제단을 감싸며 동에서 서쪽 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단의 북쪽 편에서는 제기 등을 묻어 보관한 예감 추정지도 확인됐다.

수습된 유물은 분청사기와 기와류로 신라말과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에 걸쳐

? 남악사 국가에서 국대민안(國泰民安)과 시화연풍(時和年豐)을 기원하며 지리산신을 제향했던 국가의 제례 공간이다. 전면 3칸, 측면 1칸반의 전통적인 사묘이며 산문 객사 유생청 등 다수의 부속 건물로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08년에 폐쇄될때까지 조선왕조의 국가 제례 공간이었다.

다양한 종류가 함께 출토됐다. 평기와와 문양은 여러 가지로 선문계열은 신라말 고려초에 생산된 기와이고, 수지문 계열의 복합문은 고려시대 호장집 선문 곡선계는 조선시대의 기와로 보여 남악사가 오랜 세월 걸쳐 축조와 보수가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자가 표시된 명문기와에는 사찰표시와 범어 한자 등이 표기되어 있어 사찰 관련성과 기와 생산지역, 당시 공사 관계자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발굴단의 설명이다. 이번 발굴조사는 남악사지 중심지인 제단 추정지

주변 400㎡만을 중점 발굴한 것으로 주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 전체 추정지에 대한 광범위한 발굴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광희 나라문화연구원 연구원은 "제단의 배치와 축조 상태 수습 유물 등을 종합 분석해 보면 남악사는 신라시대의 사찰 터 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전 부지에 대해 발굴을 확대 한다면 실체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해경 전북대(고건축학) 교수는 "현재 조사로 개략적인 성격은 파악되나 세부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 추가적인 주변 조사가 필요하다"며 전면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악사지는 지난 1992년 부분적 지표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후 중단됐다. 현 김순호 구례군수가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남악사 옛터에 대한 발굴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구체적인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리산 남악제를 국가중요유형문화재로 지정, 국가적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구례군과 재단법인 나라문화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당동마을 인근에서 옛 남악사터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멸종위기종 꼬마잠자리, 곡성군 노력에 '날갯짓 하다'

월봉습지서 올 첫 발견...생태시설물 설치·문화재 지정 신청



곡성군은 월봉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꼬마잠자리(사진)가 올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고 24일 밝혔다.

꼬마잠자리는 성충의 길이가 10~15mm로 보통 잠자리의 3분의 1 정도다.

국내에서 가장 큰 잠자리인 장수잠자리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잠자리 중 가장 작은 종류로 현재까지 지리산 등 국내 3곳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꼬마잠자리가 관찰된 월봉습지는 본래 휴경지논이 습지로 변한 곳이다.

습지 상단에는 웅덩이가 있고 수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 동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수변 식생의 무분별한 증식으로 꼬마잠자리의 서식처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에서는 총 4억원의 사업비로 꼬마잠자리 서식지 생태기반 공사와 식생복원 및 생태시설물을 설치했다.

꼬마잠자리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고, 월봉습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생태관광 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해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꼬마잠자리를 널리 알릴 계획도 추진 중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과 생태관광 지역 지정 공모를 통해 꼬마잠자리의 생태적 환경 보전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천연기념물 지정과 월봉습지 보호구역 지정으로 생태관광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kwangju.co.kr

여수 웅천~소호 해상교량 내년 7월 개통 순조

주탑 시공 완료...75.9% 공정

여수시가 웅천지구의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건립 중인 웅천~소호 해상교량을 내년 7월 개통한다.

해상교량은 2018년 7월 착공했으며 교량 주탑 시공이 마무리돼 현재 75.9%의 공정률을 보인다. 내년 3월이면 교량 상판과 케이블을 설치하고 7월쯤 개통할 예정이다.

해상 교량은 길이 1154m에 왕복 4차로이며 해상 부분은 550m, 진입도로는 604m에 이른다.

교량은 이순신 장군의 장검과 가막만을 향해하는 요트를 형상화해 여수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새로 건설되는 해상교량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웅천동, 소호동의 해변과 어우러지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돌산대교, 거북산대교와 함께 새로운 여수의 관광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광양항만공사, ICT 기반 건설현장 안전시스템 도입

제2석유화학부두 시범 운영 중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내항만 최초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설현장의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 시스템은 코로나19 등의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운영된다.

열화상 출입관리시스템과 모바일기기를 통해 작업장 출입관리 및 작업자의 위치정보 등을 파악하고 CCTV와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을 통

해 근로자의 안전장비 착용여부와 작업 위험도를 체크하며 실시간으로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공사는 현재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 현장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 중이며 차후 모든 건설현장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상현 여수광양항만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ICT기반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으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시책일몰제' 시행...“예산 낭비·행정 비효율 예방”

송귀근 군수 “군민 체감 서비스 제공”

고흥군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는 시책과 사업을 찾아내 폐지하는 '2021년 시책일몰제'를 시행한다.

24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일몰제를 통해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는 사무는 과감히 폐

지하고 유사·중복된 시책은 통합할 또는 개편하는 등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주요 일몰 대상은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과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된 시책,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되거나 효과가 적어진 시책, 대다수 군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시책 등이다.

군은 다음 달까지 각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 재점검으로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총괄부서는 내

·외부 전문가, 유관단체의 자문을 거쳐 일몰 대상 시책을 폐지 또는 개선 조치를 하게 된다.

시책일몰제로 폐지되는 사업의 예산과 행정력은 새로운 행정수요나 주요 현안사업에 활용한다.

송귀근 군수는 "한번 시작하면 버리지 못하는 관행적 행태를 벗어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